

노인복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읍전국실버영화제 성료... 최우수 작품 '엄마는 섭섭해' 등 17편 수상

전북영상협회(회장임병수)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제14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가 7일 정읍 CGV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화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영화로 표현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정읍에서 시작된 실버영화제는 참가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을 형식 등의 제한 없이 응모를 통해 진행되는 전국 공모전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35편이 접수되어 공정한 작품심사를 거쳐 17편의 영화가 본선에 올랐다. 최우수 작품에는 신춘몽 씨의 '엄마는 섭섭해', 우수상에는 김철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심사위원 특별상으로는 조항숙 씨의 '팁 주는 할머니'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12편의 장려상과 2편의 입선으로 총 17편의 작품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진섭 시장은 "실버영화제는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세대 간의 갈등 해소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영상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 이 오늘 오후 7시30분 서울 관악문화관에서 공연한다.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 오늘 서울 관악구 원정 공연

고창군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시 관악구를 찾아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를 오늘 오후 7시30분 서울 관악문화관에서 공연한다. 고창군은 관악구와 199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창군에서 준비한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에 살았던 흥남관이라는 실존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재인광대부대를 모티브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농악의 신명으로 풀어낸 공연이다. 공연은 동학농민군 재인광대부대의 정서와 투쟁을 한층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 고창농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농악, 남도 씻김굿, 죽방울, 버나, 기놀이, 기악 등 화

려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광대, 1894'는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주관해 2019 한옥지원활동 야간상설 공연으로 지원 받아 제작 됐다.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고창농악전수관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돼 관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아 서울 특별공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모든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 신청은 서울시 관악구청(02-879-5722)이나 (사)고창농악보존회(063-562-2044)로 문의하면 되고, 현장발매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대, 박물관 역사 체험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양으로 예포백과 민화 부채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인장(印章)도 만들어 본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청소년 1,200여 명이 전주대를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10월에는 온빛중학교, 서중학교, 서전주중학교 학생들이 전주대 박물관을 찾았다. 학생들은 과거 정보통신이 어떤 과정으로 발달했는지, 스마트폰이 없던 조선시대 통신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조선시대 편지인 '간찰'을 작성해서 직접 만든 인장(印章)을 찍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박물관은 조용

하고 지루한 곳이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도장을 만들고 완성된 것을 보면서 신기했고, 박물관도 재미있는 곳이라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에 참여했던 인솔 교사는 "무료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부담이 없고, 또 역사 수업을 지루하게 느꼈던 학생들도 흥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11월까지 '조선에서 온 편지' 등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은성기자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우리유산 '굿GOOD보러가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2일 무료공연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오는 22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펼친다. 전국을 찾아다니는 전통예술공연 '굿GOOD보러가자'에서는 우리 전통 소리와 춤, 기예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벌써 16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이 공연은 전통을 선보이는 공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역사가 되어 가고 있다.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세대를 잇는 명인들의 전통예술과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김일구, 김영자 명창의 입제창과 권원태의 신명나는 줄타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문화재단 한국곡의 집 예술단의 오고무와 부채춤, 풍류도감의 판굿, 샘:도내기의 사지춤 등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12일 오전 8시부터 김제



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무료배부된다. /김제=락도태 기자

“태권도 관련 소장품 기증하세요”

국립태권도박물관, 개인 소장 태권도 관련 유물 접수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서적, 메달, 트로피, 도복 등 태권도 관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전시·보존 중인 가운데, 태권도 관련 소장품을 기증 받는다.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박물관인 국립태권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무예도보통지 4권 '권법' 편을 비롯해 태권도 9대관과 관련된 증서, 올림픽 메달 등 7,6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번 기증 접수에서 1940년~60년대 태권도 9대관 관련 자료를 비롯해 정부과건사범 등 사범님들이 해외 과건시 사용한 교본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된 소장품들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등 유물정보 전산화 과정을 거친 후 후대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도에 따라 보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이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 획득한 태권도 종목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메달과 트로피 등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올해는 무덕관 4단 사범 자격 증서와 고김운용 총재 부임 후 최초로 발행한 국기원 4단 증서 등 가치있는 유물들이 기증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소중한 유물들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라는 생각으로 관리 해 나가겠다"라며 "기증 유물에 대한 순환 전시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기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기증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립태권도박물관(063-320-0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